

2019년 5월 9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사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 증시, 무역협상 부담과 인텔 여파로 혼조 백악관, “중국이 협상 타결을 원한다고 밝혀 왔다”

무역협상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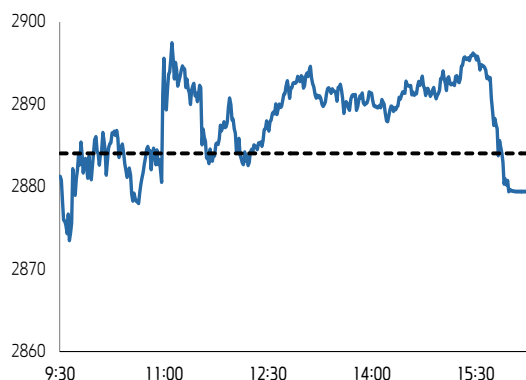
미 증시는 행정부가 관보에 10 일 대 중국 관세 부과를 공지하는 등 무역협상 불확실성 여파로 하락 출발. 그러나 중국의 협상 타결 의지를 밝힌 백악관의 브리핑 이후 상승 전환에 성공. 이후 상승하던 미 증시는 장 막판 무역협상에 대한 결과를 확신 할 수 없다는 점이 부각되고, 인텔(-2.46%) CEO 가 향후 실적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자 반도체 업종 하락하며 혼조 마감(다우 +0.01%, 나스닥 -0.26%, S&P500 -0.16%, 러셀 2000 -0.46%)

무역협상과 관련 ①지난 주 중국의 무역합의안 초안 거부 ②미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부과 공지 등 주요 이슈가 발생. 지난 주말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대 중국 강경파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가 10 일까지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 할 것이라고 발표. 시장에서는 이에 대해 ‘협상의 기술’로 분석. 그런데 오늘 미 언론은 이번 사태 발생 원인이 중국에 있었음을 시사. 지난 주 협상에서 합의안 초안이 나왔으나, 중국이 관련 초안에서 미국 요구안들을 대부분 삭제했다고 보도. 그러자 미국측의 즉각적인 반발이 나왔던 것으로 추정.

한편, 이번 주 협상에서는 류허 중국 부총리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백악관에서는 “중국이 무역협상 타결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라고 발표. 이런 가운데 미 행정부는 10 일 현재 부과되어 있는 2 천억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올린다고 관보에 공지. 이번 공지는 즉각적인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9 일 협상 결과에 따라 취소가 가능하다고 발표. 중국 상무부도 필요한 대응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

여기까지 보면 미-중 무역협상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되는 것처럼 보임. 그러나 이번 사태로 이번 주에 타결이든 부결이든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여 무역협상 지연 불확실성은 오히려 해소. 또한 지난 주 합의안 초안이 나왔었고, 이를 수정했던 중국이 한발 물러선다면 극적인 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슈가 주식시장을 비롯한 위험자산에 대해 악재성 재료로 부각될 가능성은 일부 완화된 것으로 추정.

S&P500 일종 차트



Global Indices

지수종락률(%)	Close	D-1	지수종락률(%)	Close	D-1
KOSPI	2,168.01	-0.41	홍콩항셍	29,003.20	-1.23
KOSDAQ	745.37	-1.07	영국	7,271.00	+0.15
DOW	25,967.33	+0.01	독일	12,179.93	+0.72
NASDAQ	7,943.32	-0.26	프랑스	5,417.59	+0.40
S&P 500	2,879.42	-0.16	스페인	9,227.00	-0.09
상하이종합	2,893.76	-1.12	그리스	743.01	-2.10
일본	21,602.59	-1.46	이탈리아	21,203.86	-0.07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0.79% 하락

마이크로칩 테크(-2.77%)는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으나, 가이던스가 시장 예상을 하회하자 하락했다. 특히 하반기 반도체 경기 반등이 실망스러울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 여파로 마이크론(-1.27%), 인텔(-2.46%), 텍사스인스트루먼트(-1.20%), 브로드컴(-1.27%) 등 반도체 업종이 부진했다. 특히 인텔은 CEO가 장 막판 "3년간 1자리수 수익 성장을 기대한다"고 언급하자 급락한 점도 부담. 반면, 애플 부품주인 큐로브(+3.39%)는 양호한 실적 발표로 상승했다. 특히 5G 부문의 성장이 빨라지고 있다고 언급한 점이 특징이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스카이웍(+0.61%)과 애플(+0.02%)도 동반 상승했다.

JP모건(-0.53%), BOA(-0.40%), 씨티그룹(+0.09%) 등 금융주는 국채금리 상승에 힘입어 강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장 후반 매물 출회되며 혼조세로 마감했다. 국채금리는 미중 무역협상 타결 기대감과 10년물 국채입찰 수요 둔화 영향으로 상승했다. 국채금리가 상승하자 넥스테라 에너지(-0.99%), 아메리칸 일렉트릭 파워(-1.06%) 등 유틸리티 업종은 부진했다. 코노코필립스(+0.70%), EOG리소스(+2.45%) 등 원유 시추업체들은 국제유가 강세 영향으로 상승했다.

주요 ETF

ETF 종류	동락률	ETF 종류	동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0.98%	대형 가치주 ETF(IVE)	-0.23%
에너지섹터 ETF(OIH)	-0.57%	중형 가치주 ETF(IWS)	-0.39%
소매업체 ETF(XRT)	+0.22%	소형 가치주 ETF(IWN)	-0.64%
금융섹터 ETF(XLF)	-0.22%	대형 성장주 ETF(VUG)	+0.01%
기술섹터 ETF(XLK)	-0.12%	중형 성장주 ETF(IWP)	+0.09%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1.25%	소형 성장주 ETF(IWO)	-0.50%
인터넷업체 ETF(FDN)	-0.51%	배당주 ETF(DVY)	-0.22%
리츠업체 ETF(XLRE)	0.00%	신흥국 고배당 ETF(DEM)	-0.30%
주택건설업체 ETF(XHB)	-0.72%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16%
바이오섹터 ETF(IBB)	-0.04%	미국 국채 ETF(IEF)	-0.19%
헬스케어 ETF(XLV)	+0.21%	하이일드 ETF(JNK)	+0.02%
곡물 ETF(DBA)	-0.82%	물가연동채 ETF(TIP)	-0.26%
반도체 ETF(SMH)	-0.72%	Long/short ETF(BTAL)	+0.26%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70.95	-0.06%	-1.63%	-5.13%
소재	343.17	-0.10%	-2.85%	-4.51%
산업재	640.58	+0.01%	-1.91%	+0.52%
경기소비재	933.77	-0.07%	-0.81%	+0.90%
필수소비재	582.69	-0.15%	-0.68%	+1.22%
헬스케어	1,029.92	+0.12%	-0.04%	-2.92%
금융	453.30	-0.29%	-1.66%	+3.45%
IT	1,340.96	-0.17%	-2.69%	+0.78%
커뮤니케이션	164.28	-0.36%	-1.26%	+1.33%
유틸리티	288.80	-1.38%	-1.96%	-1.54%
부동산	220.13	+0.05%	-1.36%	-2.0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개별 '종목 장세' 지속

MSCI 한국 지수 ETF는 0.24% 상승했으나, MSCI 신흥 지수 ETF는 0.14% 하락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의 순매도(-3,266 계약) 여파로 0.90pt 하락한 279.25pt로 마감했다.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71.80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2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증시가 미-중 무역협상 타결 기대감 속에 장중 상승하기도 했으나, 장 막판 불확실성 여파로 혼조 마감한 요인은 한국 증시에 부정적이다. 한편, 마이크로칩 테크가 하반기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를 감안 가이던스를 시장 예상을 하회한 수준으로 발표한 점, 인텔 CEO가 향후 수익성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한 점은 부담이다. 한국 증시의 반도체 업종에 대해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관련 내용은 최근 지속적으로 시장에 유입되었기 때문에 영향력은 크지 않겠지만, 시장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제한하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반면, 애플과 애플 부품주들이 큐로브 실적 개선에 힘입어 강세를 보인 점은 국내 관련 종목들의 변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와 함께 장중에 발표되는 중국의 물가지수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돼지가격 상승에 따라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오늘은 옵션만기일이다. 전일까지 금융투자자의 매수 차익잔고 청산 개시가 되고 있어 금융투자 발 매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연기금 등의 매도 차익잔고가 누적되어 있어 매수 기대감이 높아 금융투자 매도를 상쇄시킬 것으로 추정한다. 이를 감안 옵션만기일 수급부담은 크지 않아 영향은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독일 제조업 생산 개선

3월 독일 산업생산이 전월 대비 0.5% 증가했다. 이는 예상치(mom -0.5%)를 크게 상회한 수준이다. 특히 제조업생산이 전월 대비 0.4%, 건설업 생산도 전월 대비 1.0% 증가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제유가 상승

국제유가는 미-중 무역협상 우려가 완화되자 상승 했다. 더불어 독일 산업생산이 개선된점도 긍정적인 요인이었다. 한편, EIA 는 지난주 원유재고가 396 만 배럴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가솔린도 60 만 배럴, 정제유도 20 만 배럴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이 소식이 알려진 이후 상승폭은 더욱 확대되었다. 또한 이란과 미국간의 마찰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는 점도 상승 요인중 하나 였다.

달러화는 보험권 혼조양상을 보였다. 유로화가 양호한 독일 산업생산 결과에 힘입어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이자 달러화는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를 보였다. 그러나 파운드화가 약세를 보인 점은 달러화 약세를 제한 했다. 한편, 역외 위안화는 여전히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이고 있다.

국채금리는 독일 산업생산이 견고하게 발표되고, 미-중 무역협상 타결 기대감이 높아지자 상승 했다. 더불어 10 년물 국채입찰에서 응찰률이 12 개월 평균(2.51 배)를 하회한 2.17 배, 간접입찰도 12 개월 평균(62.7%)를 하회한 53.3%를 기록해 수요가 부진한 점도 상승 요인 중 하나였다.

금은 미-중 무역협상 타결 기대감속에 하락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미-중 무역협상 불확실성 여파로 하락 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1.09%, 철근도 0.37% 하락 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62.12	+1.17	-2.33	Dollar Index	97.632	+0.00	-0.06
브렌트유	70.37	+0.70	-2.51	EUR/USD	1.119	-0.01	-0.05
금	1,281.40	-0.33	-0.22	USD/JPY	110.12	-0.13	-1.13
은	14,862	-0.43	+0.90	GBP/USD	1.3008	-0.51	-0.32
알루미늄	1,797.00	-1.05	0.00	USD/CHF	1.0208	+0.12	+0.27
전기동	6,148.00	-0.52	-4.16	AUD/USD	0.6986	-0.37	-0.41
아연	2,648.50	-1.62	-6.26	USD/CAD	1.3480	+0.04	+0.25
옥수수	364.25	-0.61	-1.15	USD/BRL	3.9304	-1.00	+0.29
밀	439.00	-0.11	+0.69	USD/CNH	6.8089	+0.21	+1.13
대두	827.25	-0.42	-2.88	USD/KRW	1169.40	+0.25	+0.94
커피	88.55	+0.62	-2.80	USD/KRW NDF1M	1171.80	+0.04	+0.61

10 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 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2.487	+3.05	-1.28	스페인	0.956	-0.50	-4.20
한국	1.880	-0.50	+1.40	포르투갈	1.082	-0.80	-3.00
일본	-0.049	+0.30	-0.90	그리스	3.429	+9.00	+7.10
독일	-0.044	-0.60	-5.70	이탈리아	2.613	-0.50	+5.90